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P. 281

제 1독서 (사도 2, 42 -47절)
제 2독서 (베드전 1, 3 -9절)
복음 (요한 20, 19 -31절)

순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이수현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의심을 극복하며]

성태수 신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은 값지고 보람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준다. 스승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놀라고 실망한 제자들은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떨고 있었다. 주께서 불들리자 모두들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 스승을 배신한 비겁에 주님을 비를 면목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참으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필요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평화란 자기만인 잘 살았다고 자위하는, 우리 삶의 어떤 댓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가 필요할 뿐이다.

토마 사도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살아 생전에 그렇게도 빛났던 스승의 얼굴 그렇게 번위있게 들어왔던 수다한 가르침, 또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혼인집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앉은뱅이를 걸게 하고, 물 위를 걸어 다녔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스승이 것처럼 무력하게 로마의 병졸들에게 매를 맞고 끌려가 “다 이루었다”는 힘없는 말 한마디로 죽다니 그럴수가! 지금까지 신자로써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수가 있을까? 왜 신하고 진실된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배움을 받지 못하는가? 세상에 만연된 악은 무엇때문인가? 토마 사도의 의심은 우리의 의심이요, 현대 지성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을 보고 싶고, 체면해 보고 싶은 것이다. 참된 의심을 가지고, 참된 지성을 가졌다면 보다 더 깊은 신앙에 들어올 수 있다. 빠스칼, 뉴톤, 성토마스 아퀴나스, 성아우구스티노, 성바오로 모두 그러했다. 의심은 그 의심을 극복하는데 있어야 하고, 불신은 결국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 사도의 불신앙은 극복된 회의주의, 회복된 진실이 전제된 의심이었다.

의심이 나는 것은 더 큰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자. 그러나 의심을 오래 간직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의심은 눈에 티와 같다. 밤에 가라지와 같을 것이다. 의심하는 환자는 병이 잘 안 낫는 법이다.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그 집안에 화목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위정자들을 의심한다면 그 나라에 발전과 안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의심하면서 하는 가도에는 하느님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

토마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제자였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토마 사도는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요한 11, 16)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한낱 말장난이 아닌, 우리 생활로써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진정으로 주님을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도 의심을 극복하고 토마 사도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외칠 수 있으리라.
(순창 전주교회 신부)



우리의 태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오늘, 우리 전주교구의 성직자 수도자·평신도들이 사회정의 세미나와 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통하여 아직도 이 사회, 특히 노동사회에는 주님의 부활이 요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주님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음을 절감한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어 주님의 수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부활신앙을 고백하고자 우리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도시산업 선교회와 가톨릭 노동청년회의 활동은 이 시대의 주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교회 본연의 선교행위이며 신앙행위이다. 이에 도시산업 선교회와 가톨릭 노동청년회를 외부의 조종을 받는 옹공단체로 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소위 동일방직 사건, 삼고사(서울노트)사건 아리아 악기 근로자 인질 농성 사건등을 통해서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난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들 노동자 형제자매들이 당한 해고등 모든 부당한 대우를 즉각 철회하고, 그 관계자들을 엄중 처단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 교회의 대 사회적 사명에 대한 일련의 도전을 향해 발표한 여러 성명서 등(한국 교회 사회선교 협의회의 우리의 입장(78.1.22),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성명서(78.3.18),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의 성명서 및 최귀하 극무총리께 보내는 공한(78.3.20),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도회의 김수환 추기경 강론(78.3.20),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성명서(78.3.21))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의 것으로 재천명한다.

1978. 3. 27

전주교 전주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전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순정이 산책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빵을 먹을 수는 없다

“설마 빵을...” 했는데, 총천연색 사진을 보니 사실이였다. “이럴 수가...” 이것이 바로 동일방직 사건이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크리스찬 노동운동(J.O.C와 기독교 도시산업 선교)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왜곡 선전하는 일이다.

이에 김수환 추기경은 3월 20일에 있었던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도회」에서 크리스찬 노동운동을 왜곡 선전하는 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북쪽의 공산집단 뿐이라고 말하며, 이는 이적(利敵)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교회가 지금까지는 차중했지만 이제 좌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국 정명(正平)과 서울 대교구 평협(平協)이 성명을 냈다. 이에 서울 평협이 성명서 전문을 소개하여 교회사제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성명서 *

한국 천주교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78년 3월 21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12일째 단식 농성중인 인천 동일방직 노조 사건을 중시, 다음과같이 그 경위를 국민앞에 천명한다.

1. 결 의

이 사건은 천인공노할 비인도적 원시적 폭거로서 종교적 양심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동일방직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숨은 가증스런 음모가 있었다고 단정하며, 이를 방관하는 정부당국에 엄중 항의한다. 이 사건이 단시일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기야는 전국 130만 가톨릭 신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경고한다.

2. 사건 개요

지난 2월 21일 인천 동일방직에서 있는 이 공장 노조 대의원 선거는 그 수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고 있던 이 공장의 여공들이며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이 인분 세례를 당함으로써 폭발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양심 세력이 압승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달갑게 생각지 않는 회사측과 그 배후에 숨은 거창한 음모 집단이 사주를 받은 어용 세력들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다수 동원하여 물통에 빵을 퍼들고 달려와 양심 세력들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빵을 손으로 찍어 투표장에 오는 여공들의 입속에 쑤셔넣는가 하면 결레에 묻혀 얼굴에 문대고 젓가슴에 집어넣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것도 모자라 빵으로 눈을 못뜨는 여공들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는가 하면 입술을 물어뜯기까지 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이런 만행이 아프리카

의 원시사회인들에 있었는가! 이 지구상 고급 동서 어느 나라에서 있었겠는가! 연간 100억불 수출에 국민소득 1,000달러요, 중진국 상위에 들어섰다는 이 땅에서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문화민족을 자처하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을 백성이 어디 있었는가!

구호 요청을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왜 방관하고 있었는가? 그 경찰은 어느 편이었던 말인가? 방관했다면 그 이유는? 그 배후는? 순진한 여공들이지만 그 내막과 진상을 모두 다 알고 있다.

분통이 치밀은 여공들은 지난 3월 10일 장충 체육관에서 있는 노동절 행사에 참석, 최규하 총리를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 만행의 진상 규명은 커녕 이들 여공들을 구류처분했다. 기절할 정도로 비분강개한 이들 여공 70명은 인천 산업선교회에서, 40여명은 명동성당 사제관에서 최소한의 인간대우, 노동자대우를 절구하며 삼급 단식 농성을 계속중에 있다.

3. 요구 사항

1) 노동운동이란 명목 아래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 “정치선학은 논리와 형태” 등 불온 책자의 대량 살포로 산업선교회와 J.O.C 활동을 공산당 활동으로 몰아치는 등 치졸한 종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당국은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라.

3) 이종각 지부장, 정의숙·이병구 부지부장, 김인숙 총무의 제명과 동일방직 노조를 사고 지부로 만든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정상 노조임을 인정하라.

4) 만행을 저지른 괴한들을 색출, 의법 엄중 처단하고 이를 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문책하라.

1978. 3. 21

한국 천주교 서울 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환) 파티마의 성모 순례단 전주 방문 (영)

일시 : 4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 파티마 새성당(전주시 효자동)

평화의 파티마 순례단이 복한 공산당의 회개를 기도하기 위해서 4월 13일에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평화의 성모상은 13일에 서울을 거쳐, 14일에 전주·대전·부산, 15일에 대구·임진각(철야기도), 16일에는 인천을 순방하십니다.

우리 교구를 방문하시는 평화의 성모님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의 성을 봉헌합니다.

* 교구 신자에게 부탁드리는 협조사항

□예물...로사리오 기도 100만번

(3월 20일부터 금년 성모성월 마지막날까지 모든 신자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목주의 기도 100만번 바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단원들은 주간 등으로 하세요)

□화환...각 꾸리아 단위로 봉헌

□단기...각 브레시디움 단기 지참

주관 : 레지오 마리에 파티마의 모후 꼬미시움 (2-3222)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聖母 마리아

김 환 철 신부

□ 파티마 메시지와 공산주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현존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모님은 그 시대의 징표에 따라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발현 가운데에도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특별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모님은 세 소년 소녀 프란치스코, 히야친타, 루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 「공산주의의 회개를 위하여 로사리오(목주의 기도)를 바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에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하느님의 승리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절대적인 명제이며, 파티마의 로사리오 여왕의 청은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의로운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파티마의 기적이 있었던 1917년에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은 공산주의의 피비린내나는 광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1917년 11월의 러시아 혁명으로 일어난 공산주의로 인해 세계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자멸적전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성모님의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난 다음 달에 있었던 공산혁명을 우리는 어떻게 음미하고 받아드려야 할까요?

□ 남북 평화를 위해 오시는 마리아

세계평화를 위해 축성된 파티마 성모상은 1946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축성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상이 바티칸 대성전에 모셔져 있을 때, 마치 1917년 10월 13일 성모님의 마지막 발현 때와 같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소용돌이치는 기적을 목격한 교황은 "인간의 눈으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볼 수 있단 말인가!?"하고 감탄하셨습니다. 그후 이 성모상이 세계 각처에 가질 때마다 기적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1947년 불란서와 스페인 국경선에 모셔졌을 때 정치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베트남을 방문하셨을 때는 성모상도, 성직자도, 많은 신자들도 다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고나서야 그들은 성모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SOUL 잡지에서 참조)

우리나라에 오시는 성모님은 일찌기 중공을 거쳐 오시려 했으나 주은래의 사망으로 와해되어 미국에서 직접 오시게 됩니다. 한국 방문을 계기로 보잉 707 비행기를 샀으며 170명 순례단을 대동하고 오십니다.

4월 14일에 이곳 전주에까지 오시는 성모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파티마 꼬미시움 월례 회에서는 영적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교형자매 여러분들께 삼가 부탁드리기로 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는 기쁨을 더욱 값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로사리오 꽃다발 100단개를 함께 엮으십시오. 특별히 레지오 단원에게는 활동지시로 5월말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교구 온 누리에 로사리오 향기가 증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레지오 마리에 지도신부)

요심이 (244)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입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보)

□ 판매사원 모집 □

당 영업소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최고급 장화용 미용비누를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1. 모집인원: 약간명
2. 자격: 중졸이상 활동력 강한여성
3. 대우: 월 10만원이상
4. 기간: 78. 2. 23(목)까지
5. 접수장소: 전주지전동1가 200-1 ☎ ② 8466

모세실업(주) 전주 영업소

★ 양심을 찾자 ★

카메라 대여, 학교 각종 사진 출판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일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서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보)

아크릴 · 아취 · 실내장치 · 종각간판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야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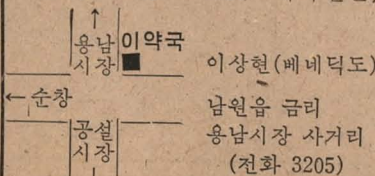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 8 5

● 감초당 약국 앞

친절, 엽가봉사 합니다.

이 약 국(조제약전문)



□ 직원 채용공고 □

1. 응모 자격:

- ①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② 병역을 필한자
- ③ 주산 2급 부기 2급이상 자격 소유자로서 신체 건강한 자

2. 제출 서류:

- ①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병적 확인서 1통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신원증명서 1통
- ⑥ 자격증 사본 각 1통

3. 접수마감: 1978. 4. 15. 17시

4.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5. 전형일자: 1978. 4. 17 오전 10시

6. 제출처: 전주시 중노총동 1가 472-19

노송신용협동조합 (② 4834)

공지사항

-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위한 사순절 돼지 저금통을 정성드려 봉헌합니다
- 1. 춘계 주교총회(4월 4일-7일) 주교회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축! 군산 월명동 성당 축성**(4월 10일<월> 오후 2시), 전주 파티마 성당 축성식(4월 14일<금> 11시)
- 3. 성소주일 행사(4월 16일<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터)
- 4. **푸르실로 교구 올드레야**(4월 23일<일> 11시-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푸르실리스타는 본당 신부님을 찾아 뵙고 4월 8일까지 조사하는 푸르실리스타 현황조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5. 교구 인성회에서는 마산시장 화재에 성금 10만원, 원주 학성동 본당 화재에 10만원, 춘천 교구 산하 동해안 해난사고에 성금 10만원을 보냈습니다
- 6.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4월 3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 박종근 신부님 송별식에 제위 신부님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4월 3일(월) 오후 6시 장소: 가톨릭센터

(중양)

전화 ③651 3874
주임 신부 서동목
보좌 신부 범진배
보좌 신부 범영복
사도 회장 이복석

- 1. 중·고 학생회 마유회: 2일 오전 10시(구이 저수지)
- 2. 사도회 월례회: 2일 공식 미사후
- 3. 프란치스코 3회 월례회: 2일 오후 1시 30분 (강당)
- 4. 미사시간 변경: 4월 3일부터 새벽-6시 저녁-8시
- 5. 사제 양성 후원회 저금통: 9일까지 가져오세요
- 6. 판공성사 못 보신분: 병일미사 전후로 보세요
- 7.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각종 전례에 참여 합시다
- 8. 다음주(9일) 공식미사 전례담당
독서자: 김한영, 양쌍주 북사: 오중원, 박영근
해설: 양학도

□ 지난주 봉헌금: 320,695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록

- 1. 애령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본당 식목행사: 각 단체에서는 나무를 본당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목한 나무에 기증하신 단체명을 표시합니다)
- 3. 공소돕기 교회 간행물 수집: 단체 또는 개인별로 공소 신자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될수 있는 각종 교회 출판물(가톨릭 시보, 경향잡지, 사목잡지)를 보내 주실분들 기다립니다
- 4. 청년회 1일수도 생활: 오늘 공식 미사후 부터 오후 4시까지 많은 참석 바랍니다. 회비: 300원
- 5. 세라핀 성가대 정기모임: 매주 오전 9시
- 6. 판공성사 아직 못보신 분들은 자미사 전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 7. 부활절 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8. 본당 올드레야: 4월 2일 오후 8시(많은 참석 바랍니다)

※ **축! 결혼** 신랑-박영춘, 신부-이데레사(은희)
□ 지난주 봉헌금: 130,1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유제상

- 1. 사도회 확대회: 미사후
 - 2. 청년회: 공식 미사후 미화작업 (많은 협조 바람)
 - 3. 본당 신부님을 위한 많은 기도 바랍니다
 - 4. **축! 결혼** 78. 4. 2일 미사후 11시반
신랑: 유관용(도미니코) 신부: 이금임(루시아)
- 지난주 봉헌금: 160,415원
(11조 정신의 입각한 봉헌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김낙환 형제님)
- 3. 성부활 특별 헌금 (꽃, 화분, 부활초, 제대초) 신부님(5,000원), 사도회(10,000원), 유덕열(6,000원), 최희숙, 유기순(각 3,000원), 익명(10,000원), 이갑진, 장동주(각 1,000원), 염규철, 김성원(각 1,500원), 부활초 고혜레나(6,000원), 제대초 서용현(1,200원)

- 계 49,200원 감사합니다
- 4. 성 목요일 불우한 이웃을 위한 헌금 14,280원 한말지나, 김안나씨에게 히메레사씨가 전달
- 5. 오늘 1일교장: 조바로로(영호) 형제님 다음주 1일교장: 염요셉, 규철 형제님
- 6. 병자 성사 및 봉성제: 4월 4일
- 7. 유아세례: 4월 3일(월) 어머니미사 (2일 까지 사무실에 접수바람)

□ 지난주 봉헌금: 211,9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 1. 사도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 2. 학생회 월례회: 10시 미사후 학생미사: 토요일 오후 7시반
- 3. 반상회: 1반-4월 4일 2반-4월 5일 3반-4월 6일 4반-4월 7일
- 4. 대청소 및 환경정리: 4월 5일 중·고등 학생회
- 5. 부활 판공 미필자: 미사 전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21,16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 1. 사도회 월례회·4월 2일 공식 미사후
- 2. 돼지 저금통 반납합니다 (각 구역장님 반장님 협조 바랍니다)
- 3. 봄 판공 성사 빠지신 분은 미사 전후에 임하여 주십시오
- 4. 3월 17일 단식헌금 빨리 내주시요
- 5. 학생회 입회원서 제출바람
- 6. 반상회 일정안내
4월 1일-진복 1동 1반, 3일-진복 2동 2반,
5일-진복 2동 3반, 7일-진복 1동 1반,
9일-진복 2동 5반, 11일-진복 2동 6반

□ 지난주 봉헌금: 236,94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환
보좌 신부 유종석
사도 회장 유종석

- 1. 사도회 안건: 새 성당 축성준비 회합
- 2. 성화회: 10시 미사후
- 3. 유아세례: 2시 미사후
- 4. 예비자 교리: 잠시후 시작
- 5. 임진각(자유다리) 신청바람: 16일 오전 7시 출발 회비: 3,000원
- 6. 성당의자 신입 헌금: 누계-589,000원
- 7. 새 성당 환경정리 봉사활동: 파티마 프레스티움, 클라라 형제회: 감사합니다
- 8. 새 성당 신축헌금 완납주간
- 9. 미사시간 변경: 아침-5시반, 학생미사-8시반, 저녁미사-8시
- 10. 파티마 성당 은인을 구할 (중, 십자가, 14처, 마이크, 촛대, 성물, 제의, 오르간, 감실(+), 제대(+), 응접세트 1조(+)) 식당가구, 기타)

☆ 사제양성 저금통 현재 384,821원

□ 지난주 봉헌금: 390,690원